

보도 일시	2022. 12. 19.(월) 12:00 (2022. 12. 20.(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19.(월) 09:00
담당 부서	국립전파연구원 국제기구협력팀	책임자	팀 장 이경희 (061-338-4460)
		담당자	사무관 박문철 (061-338-4480)

한국주도로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메타버스 표준화 그룹 신설

- 우리나라 의장단 의석 확보로 메타버스 표준화 주도권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표준화자문그룹(TSAG*) (한국대표단 수석대표 : TTA 구경철 본부장)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메타버스 포커스 그룹**이 신설되고, 의장단 의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 ITU-T 연구반 상위 자문그룹으로 ITU-T부문 연구반 활동 조정, 작업방법 등을 논의

** 포커스 그룹 : 특정 이슈에 대해 ITU-T 연구반의 활동을 돕고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 해당 기술 및 표준 사전연구 등을 수행하는 그룹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반과 상위그룹인 TSAG에서 메타버스 표준화 연구의 필요성과 전담그룹 신설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한 결과, 이번 TSAG회의에서 다수 국가의 지지로 메타버스 포커스 그룹을 신설하게 되었다.

올해초부터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기술 연구반(SG16)에서 메타버스 표준화 추진 이슈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 그룹인 메타버스 서신그룹 의장을 수임하고, 정보보호 연구반(SG17)에서 메타버스 보안 표준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반영시키는 등 메타버스 포커스그룹 신설을 위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번에 신설된 메타버스 포커스그룹 의장단에 우리나라가 진출(의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신각 본부장)함으로써 국제 메타버스 표준개발을 우리나라 전문

가가 주도하고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TSAG 회의는 지난 ITU-T 표준 총회(2022년 3월)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 산하 구조 및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작업방법 및 총회 결의**’ 작업반(Working Party 1)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이민아** 책임이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ITU-T 표준화 추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TSAG 회의를 통한 메타버스 포커스그룹 신설과 작업반 부의장 선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ITU-T의 메타버스 기술연구와 표준화과제의 선제적 발골을 통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ITU-T내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ITU-T 및 TSAG 개요

<공동>	국립전파연구원 국제기구협력팀	책임자	팀 장	이경희 (061-338-4460)
		담당자	주무관	박성천 (061-338-4462)
<관련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 표준팀	책임자	팀 장	김기훈 (010-5111-1072)
		담당자	책 임	이민아 (010-5111-1045)

□ ITU-T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 (역할) ITU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으로서,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운용·요금 등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국제 권고를 개발하고 채택
 - (구조) WTSA* 산하 총 1개 자문그룹 1개 및 11개 연구반으로 구성
-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ITU-T 조직도>



□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 (역할) ITU-T의 주요결정이나 운영에 대한 자문, 연구반 활동 조정, ITU-T 작업방법·절차 관련 권고안 개발 등
- (구조) 산하 2개 작업반(Working Party) 및 5개 라포처그룹(Rapporteur Group) 등으로 구성

<TSAG 조직도>

